



3 혁신학교 7년차 광주 봉주초

지난 20일 찾아가 광주시 남구 봉주초교는 시끌벅적했다. 학교 벽면에는 '봉주축제'를 알리는 양중맞고 귀여운 그림·문구들이 그려진 수십장의 포스터들이 나붙었고 운동장에는 20개가 넘는 체험 부스를 뛰어다니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4학년 김예진(11), 김세영(11)양은 체험 부스를 돌아다니는 또래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수업중에 만들었다는 손거울과 연필꽂이, 휴지케이스 등을 적극 홍보하며 구애를 권했다. 체험부스인 '탄산수 만들기' 코너에 앉아 실수하지 않겠다는 듯 또래 아이들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며 따라하는 학생들도 눈에 띄었다.

이날 열린 봉주초의 '봉주축제'는 학교만의 행사라 아니다. 올해로 7년째 접어들면서 '마을 축제', '동네 축제'로 자리잡았다. 학교 뿐 아니라 지역사회도 참여하는 축제이기 때문이다. 리플렛에도 '제7회 봉주골 마을축제'로 안내하고 있다.

축제 세부 일정과 프로그램을 짜는 것은 학생들이 직접 맡았다. 학생들이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4시까지 운영한 체험 부스는 '야구공으로 놀자', '할로윈, 캐나다 문화체험', '광섬유 나비만들기', '이슬이슬 잡자리' 등 28개였다.

여기에 학부모, 지역교육단체, 대학, 사회적경제연합회, 소방서, 장애인종합복지관, 다문화센터 등도 학생들 운영 부스 한 칸에 체험 코너를 마련하고 학생들의 체험을 도왔다.

마을과의 소통, 협력을 중시하는 혁신학교의 특징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봉주초 2학년 교육과정에도 '동네를 둘러보고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을 살펴보고 마을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찾아 실천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봉주초의 이같은 시도는 지난 2011년 혁신학교로 지정된 뒤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교과서 진도 중심 수업 대신, 관심 가는 주제를 정해 교과수업·체험활동 등 다양한 학습 방법을 연계하고 동원하면서 변화를 꾀했다.

2학년 2학기의 경우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데 초점을 맞춰 '함께 어울려 살아요', '가을이 놀자', '내가 만나는 우리나라와 이웃나라', '겨울 이야기' 등 4개의 주제를 선정하고 국어·바른생활·슬기로 운생활·즐거운생활·창의적체험활동 등에 맞도록 교육 과정을 재구성했다.

7년째 차별화된 교육과정과 수업 방식으로 학교 문화에도 변화가 생겼다.

우선, 체험 활동이 많아지면서 학생들 사이에 학교가 '재미있고 즐겁고 갈만한 곳'이라는 인식이 생겼다.

1·3·5학년과 2·4·6학년으로 묶어서 총·

학생 주도 '봉주골 마을축제' 가면



직접 만든 손거울 뽑내고



심폐소생술 체험도 하고



'계절학교' 프로그램에 참여, 목공 등을 익히고 있는 학생들.

<봉주초 제공>

마을주민 함께 학교축제 만끽

참여형 체험 위주 수업 결실

총·목공 등 자율학습 계절학교

전남지역 특색있는 교육도 호응

난타, 수영·빙상, 오키나와, 공예, 목공 등을 익히는 '학기 집중 여름 계절학교' 때는 학교에 가방을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

수업도 교사 주도도 아닌, 학생 주도로 이뤄지면서 자연스럽게 주인의식이 생겨났다. 2교시를 묶어 통합 교과에 집중하고 쉬는 시간을 늘리는 '블록 수업' 방식으로 인해 학생들끼리 자율적 학습도 활발해졌다는 게 이영수 교감의 설명이다.

봉주초 뿐 아니라 광주지역 혁신학교로 지정된 30개 초등학교, 전남 64개 초등학교 대부분이 비슷하다.

학생 중심의 참여형 수업을 지향하면서 다양한 체험활동·동아리활동·프로젝트 수업 등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 삶에 필요한 능력을 길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남도교육청보육연구원 교육정책연구소가 펴낸 '무지개학교 지원을 위한 컨설팅 현

황과 운영 사례'는 전남지역의 4~6년 혁신학교의 다양한 운영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신안 압해동초의 경우 전교생과 교사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 예를 들면 '복도 통행을 잘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핸드폰 사용을 허용하는 범위 정하기' 등을 주제로 '다모임'을 통해 결정하고 논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신안 압해도 특산물인 뽕나지 유통경로를 추적, 수산시장 경매부터 서울 식당에서 손님 식탁에 오르기까지 과정을 체험하는 '뽕나지 유통여행' 프로젝트를 수학여행과 연계해 진행하는 프로젝트 학습을 추진하기도 했다.

광양골약초도 학생임원(학급 및 학생회)을 없애고 모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가 하면, 학생이 일일 교사로 나서 교사 대신, 과학축제를 진행하고 학생들 스스로 축제 계획과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토록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골약초는 또 학년별로 '무인도에서 살아보기'(4학년), '영산강 따라 자전거타기'(5학년), '지리산 종주길 걷기'(6학년) 등 역량을 키우기 위한 중점 체육활동을 운영해 눈길을 끈다.

순천 별량초는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혁신학교 특징을 강화하고 있다. 학부모가 학교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

편, 마을공동체가 학교 교육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데 적극적이다. '학부모 아카데미'나 '학부모 동아리', '아빠 모임'을 활성화하고 '지역 기관, 단체장의 아침 책 읽어주기', '엄마 품책 읽어주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마을이 아이들을 키우는' 방안을 찾는데 고민한다는 얘기가.

해남군 화산중의 경우 3학년 학생 46명, 교사 9명의 소규모 중학교의 특수성을 감안, 겨울철, 가장 추운 날을 골라 교내에 훈떡 좌판을 벌여 대화하는 '호떡 프로그램', 첫눈 오는 날 교정 사진찍기, 글짓기 등을 하는 '첫눈감성 프로그램' 등 감성을 키워주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이같은 혁신 초·중학교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전남교육정책연구소가 지난 2015년 전남 초·중 48개 학교(혁신학교 24곳·일반학교 24곳)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혁신학교 학생·학부모들은 일반학교 학생에 비해 '특색있는 교육과정',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등의 분야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교과서에 내가 나오네?

폐교 위기서 100명으로 학생 늘린 '경남 화제초'

경남 양산 화제초도 지난 2015년 혁신학교로 지정됐다. 경남형 혁신학교는 '행복학교'로 불린다. 광주에서는 빛고을혁신학교, 전남에서는 무지개학교로 불린다.

화제초의 경우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미래형 학교'로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형적인 시골마을에 위치, 한때 30명까지 학생 수가 줄면서 폐교할 대상에 올랐지만 특색있는 교육과정과 학생·교직원 간 공감·소통을 중시하는 의사결정구조 등으로 도심에서 찾아오는 학생들로 100명까지 늘어났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공교육 혁신의 파일럿 스쿨(본보기 학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학생들이 재미있게 재구성한 교육 과정이 우선 눈길을 끈다. 김진희 교사는 기존 교과서 대신, 화제초 아이들 사진, 실명을 넣어 1학년 지역화 국어 교과서인 '한글 첫걸음'이라는 책자를 만들었고 마을 전경 사진도 추가해 친근감을 높였다.

전 학년이 한 학기 동안 읽을 책 한 권을 선정해 같이 읽고, 토론하고, 체험 활동을 하는 '온책 읽기 수업'은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반으로 줄이는 효과를 봤다.

3학년부 6학년까지 50여 명의 학생들이 격주 월요일 한 교실에 모여 '다모임'을 갖고 소통하면서 주제별 의견을 수렴, 규칙과 학교 계획을 만드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도 활성화됐다.

교사들은 매주 2차례 모임을 갖고 수업 아이디어와 교수 기법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김지을기자 dok2000@

영광 전원주택 매매

전원주택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가 가능
최근 리모델링 완료

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시세가 1억3천만
매가 9천8백

직매 010-6670-9800

수기동 상가 매매

천변로 전망최고
20층 중 6층

45평 (주차완비)
고급시설 (리모델링 5천만투자)

보 1천 월 60만

시세가 1억 5천
매가 9천7백 (용5천)

직매 010-6670-9800

경매 (주)대신경매

1) 동구 충장로 (4층 상가건물)
토지 215평 건물 157평
금남로 4가역 1분
(대형 주차장있음)
감정가 11억 → 최저가 8억8천

2) 광산구 월곡동 (상가주택)
토지 51평 건물 134평
감정가 3억7천 → 최저가 2억6천

3) 금남로 16층 (상가건물)
토지 488평, 건 6,000평
감정가 251억 → 최저가 140억

4) 동구 서석동 (주택)
토지 153평 건물 50평
서석초, 동구청 1분 (조선대 3분)
감정가 4억9천 → 최저가 4억9천

5) 나주 경현동 (4층 상가 주택)
토지 600평 건물 411평
금성산 산책로 위치
감정가 17억7천 → 최저가 9억9천

6) 전주시 완산구 전동 (3층 상가건물)
토지 288평 건물 528평
한옥마을 인근 (월세 1천만 이상 예상)
감정가 40억 → 최저가 40억

010-7384-7800

경매교육

1) 기초이론반 (무료)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경매 기초 배우실분

2) 실전반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경매기초 + 실전경매

3) 경매 투자반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특수경매, 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인대, 개찰까지 원스톱 진행

전문직업 컨설팅반
(프리 1년반)

(무료제공)
경매교육, 컴퓨터, 책상

경매 입찰부터 매매까지
경매컨설팅
직업으로 하실분
공동사무실 사용하실 분
010-6670-9800

010-6670-9800